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 — 3 —

枣核

外10篇



作者介绍

小泽俊夫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编辑委员长

1930 年生于中国・吉林省。筑波大学名誉教授。昔话大学 / 小泽昔话研究所负责人。主要著书《日本の昔話》全五卷（福音館書店）、《昔話の語法》（福音館書店）等。

刘守华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编辑委员

1935 年生于中国・湖北省。华中师范大学教授。主要著书《中国民间故事史》（湖北教育出版社）、《比较故事学论考》（黑龙江人民出版社）等。

金和经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编辑委员

1947 年生于韩国・庆尚道。岭南大学校文科大学国文学科教授。主要著书《한국의 설화》（지식산업사）、《애들이야, 한국신화 찾아가자.》（오후의 북 3 지）等。

马场英子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编辑委员

1950 年生于日本・冈山县。新潟大学人文学部教授。主要著书《龍宮からきたおよめさん》（ほるぷ出版）、《北京のわらべ唄 1・2》（研文出版・共著）等。

蔡皋

1946 年生于中国・湖南省。绘本画家、插图画家。主要作品《荒园狐精》（浙江少年儿童出版社）、《桃源郷ものがたり》（福音館書店）等。

金晟敏

1965 年生于韩国・汉城特别市。绘本画家。主要作品《토끼전》（창작과비평사）、《두꺼비의 보은》（보리출판사）等。

太田大八

1918 年生于日本・长崎县。活跃于绘本、插图、装帧界。主要作品《馬ぬすびと》（福音館書店）、《仙人になる方法》（小峰書店）等。

金东勋

1942 年生于中国・吉林省。延边大学朝鲜文学系教授。主要著书《朝汉民间故事比较研究》（辽宁民族出版社）、《朝鲜族文化》（吉林教育出版社・共编）等。

季颖

1949 年生于中国・河北省。儿童文学作家・翻译家・研究者。主要著书《一块花布》（中国少年儿童出版社）、《青蛙卖泥塘》（少年儿童出版社）等。

大竹圣美

1969 年生于日本・埼玉县。东京纯心女子大学专任讲师。主要译书《インゲンニムのみみ》（古今社）、《うしとトッケビ》（アートン）等。

本书的出版得到下列人士的协助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编辑委员

相贺昌宏（财团法人 出版文化产业振兴财团理事）

小峰纪雄（儿童读书推进会议副代表）

村田训子（小泽昔话研究所研究员）

企画・编辑协助

任章赫（中央大学校文化大学助教授）

藤井いづみ（白百合女子大学讲师）

朴恩德（翰林出版社编辑）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 3
枣核 外 10 篇

2004 年 10 月 25 日发行

企画

中韩日儿童童话交流事业实行委员会

（组织成员：思考儿童未来议员联盟等）

编辑

财团法人 出版文化产业振兴财团（JPIC）

后援

中华人民共和国驻日本大使馆

驻日本大韩民国大使馆

日本国文部科学省

发行

独立行政法人 国立奥林匹克纪念青少年
综合中心

〒 151-0052

东京都涩谷区代代木神园町 3-1

电话 03-3467-7201

<http://www.nyc.go.jp>

印刷・装订

凸版印刷株式会社

NDC908 260 × 215mm 84P

ISBN4-902752-07-7

Printed in Japan

中国·韩国·日本民间故事集

3



枣核

外10篇



装帧设计 杉浦 范茂

Text : ©Toshio Ozawa 2004. ©Liu Shouhua 2004. ©Kim Wha Kyong 2004.
©Eiko Baba 2004. ©Jin Dong Xun 2004. ©Ji Ying 2004. ©Kiyomi Otake 2004.

Illustrations : ©Cai Gao 2004. ©Kim Soung Min 2004.

©Daihachi Ohta 2004 by Medialynx Japan.

目次

1. 枣核 (中国)	4
2. 鬼怪的故事 (韩国)	18
3. 滚年糕 (日本)	26
4. 谁的本事大 (中国)	32
5. 鹿、兔子、癞蛤蟆争相卖老 (韩国)	44
6. 老鼠嫁女 (日本)	48
7. 猫哪儿去啦 (中国)	56
8. 不孝的青蛙 (韩国)	60
9. 嗨哟 (日本)	64
10. 镜子的故事 (韩国)	70
11. 胡萝卜、牛蒡和萝卜 (日本)	76
12. 解说	80
13. 致辞	83

대추씨 아이
なつめ太郎

枣核

选编·刘守华
画·蔡皋



早年间，在山脚下的一个村庄里，
有一家人家，只有两口子过日子，成
天价盼个小孩。两口子都说：“俺哪
怕有枣核那么大个孩子也好啊！”说
了这个话，过了不少日子，生了一个
小孩。无巧不成故事，正好像枣核那
么点儿。两口子喜欢得了不得，给孩
子起了个名字叫枣核。

一年又一年，枣核一点也不见长，
还是像枣核那么点儿。爹说：“枣核
呀！白叫我喜欢了一场，养活你这样
的孩子能做什么！”娘说：“枣核呀！
你一点不见长，我也真为你愁得慌！”
枣核说：“爹、娘，都不用愁，别看
我人小，一样能做事情。”

옛날 어느 산기슭의 한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식이 없는 부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날
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대추씨만한 아이라도 좋으니 재빨
자식을 낳게 해 주십시오.” 얼마 후 드디어 부인은 아이를 낳
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정말로 대추씨만큼 작았습니다. 하
지만 부부는 너무도 기뻐하며 아이에게 대추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 해 또 한 해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대추씨
아이는 조금도 자라지 않고 여전히 대추씨만 하였습니다. 아
버지는 속이 타서 한탄했습니다. “대추씨야, 우리가 괜히 기
뻐했나 보다. 너 같은 작은 애를 키워 무슨 일을 시키겠느냐?”
어머니도 여간 상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한 치도 자라
지 않으니 정말 속상해 죽겠다.” 그러자 대추씨 아이는 자신
만만하게 대꾸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
작아도 무슨 일이나 다 잘 할 수 있어요.”

昔、山のふもとの村に二人きりでくらす夫婦がいました。
ずっと子どもをほしいと思っていましたが、あると
き、「なつめの種ほどの小さな子でもいたらなあ」と言
うと、しばらくして子どもが生まれました。なんとほん
とうになつめの種ほどの小さな子でした。夫婦はうれし
くてたまらず、子どもになつめ太郎と名づけました。

一年また一年と時がたちましたが、なつめ太郎は、あ
いかわらずなつめの種ほどの大きさで、いっこうに大き
くなりません。父さんが言いました。

「あんなによろこぶんじゃないよ。育てたって、
なんのかいもない」

母さんが言いました。

「おまえはちっとも大きくならないんだね。わたしは
心配でたまらないよ」

なつめ太郎が言いました。

「父さん、母さん、ご心配なく。体は小さくても、は
たらきは一人前ですよ」

枣核很勤快，天天干活，不但身体练得结实，还学了很多的本领。他能扶犁，也能赶驴，打柴比别人打得都多，因为别人上不去的地方他也能上去，他一蹦就能蹦屋脊那么高。

邻舍百家都夸奖起枣核来，有的埋怨自己的孩子说：“人家枣核那么点儿，也能做活，你不会做活，还不羞！”枣核的爹娘也高兴了起来。

정말 대추씨 아이는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몸도 튼튼하게 단련하였고, 일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젠 제법 밭일도 할 줄 알았고, 나귀도 부릴 줄 알았으며, 땔감도 남보다 배나 많이 해왔습니다. 그는 남이 오르지 못하는 높은 산에도 썩썩 오를 수 있었고, 지붕 꼭대기만 한 높이도 훌쩍 뛰어서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모두 대추씨 아이를 칭찬했으며, 어떤 이들은 대추씨 아이와 비교하여 자기 자식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저 대추씨 아이를 보렴. 그 애는 작아도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 넌 멀쩡해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줄 모르니……쫂쫂.”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자 대추씨 부모는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なつめ太郎は、せっせ、せっせと毎日仕事にはげんだので、いろいろな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すきも使えましたし、ろばを追うこともできました。たきぎだって、人よりたくさんとってきました。ほかの人がのぼっていけないところにもひょいとのぼれたからです。なつめ太郎のひととびは、屋根のてっぺんにとどくほどでした。

近所の人みななつめ太郎に感心しないものはなくなりました。中には「なつめ太郎はあんなに小さくても、はたらきものなのに、おまえときたら、はずかしくないのかい」と自分の子をなじる親もありました。なつめ太郎の父さん母さんも大にここにこです。





枣核不光勤快，也很精明。

有一年旱天，满坡里的庄稼一粒也没收，庄户人没有吃的，城里的衙门里还是下来要官粮。庄户人纳不上粮，县官就吩咐衙役把牛、驴都牵了去。

牵去了牛、驴，没有了种庄稼的本儿啦，大伙都愁得了不得。枣核对大伙说：“都不用愁，我有办法！”有的人却不相信，说：“我才不信咧，你别小人说大话！”枣核也不争辩，只是说：“不信，你们就看看。”

대추씨 아이는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아주 총명했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밭의 곡식을 한 알도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농부들은 당장 먹을 식량도 없는데, 관청에서는 조세로 곡식을 바치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아무리 다그쳐도 농부들이 곡식을 바치지 못하게 되자, 고을 원님은 아전들을 시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소나, 나귀를 끌어가게 했습니다.



농사 밀천인 소와 나귀를 끌
어가니 농부들은 모두 수심에
잠겨 한숨만 폭폭 내쉬었습니
다. 이때 대추씨 아이가 나서면
서 말하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에게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추씨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너
같이 조그만 아이에게 무슨 방
법이 있다고 큰 소리냐?” “믿지
못하겠으면 그만뒤요.” 대추씨
아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자리를 뒀습니다.

なつめ太郎ははたらきもののうえにとてもかしこい子
で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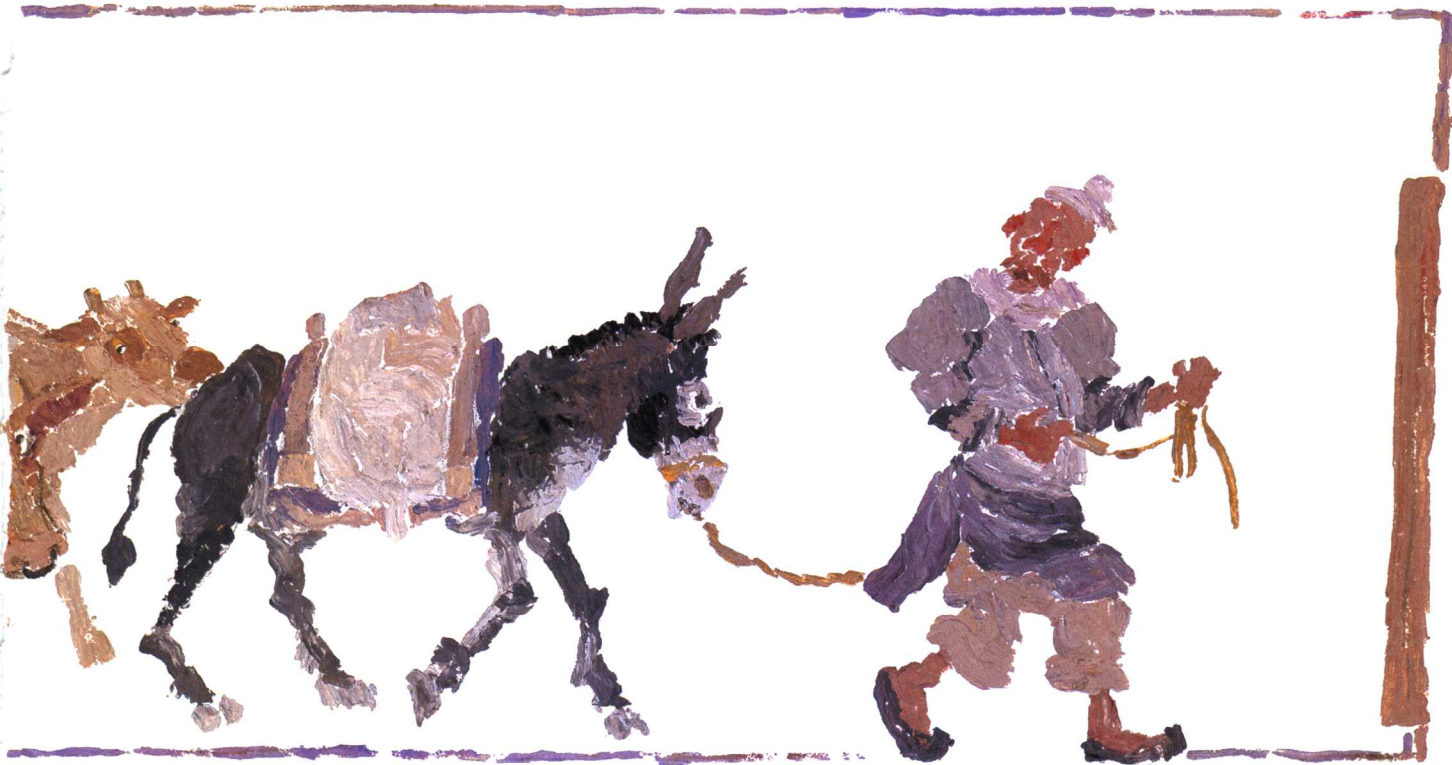
ある日照りの年、村中の畑で、こくもつが一つぶも実り
ませんでした。村ではどこにも食べるものがないのに、役
所からは、ねんぐのこくもつをおさめろと言ってきました。
村人がおさめられないでいると、県知事は下役人に命じて、
村人の牛やろばを取りあげてしまいました。

家畜をつれていかれては、畑もたがやせません。みんな
がこまりはてていると、なつめ太郎が言いました。

「心配しないで。いい考えがありますよ」

「なんだって。子どもがほらを吹くもんじゃないよ」と
言う人がいても、

「うそだと言うなら、まあ、見ていてください」 なつめ
太郎は言いました。







到了晚上，枣核跑到县官拴牛、驴的院子外面，一蹦蹦进墙去。等衙役都睡着了，枣核解开缰绳，又一蹦蹦到驴耳朵里，“哦喝！哦喝！”大声吆喝着赶驴。衙役们从梦里跳了起来，惊慌地喊着：“进来牵驴的啦！进来牵驴的啦！”明刀长枪的，到处搜人。

밤이 되자 대추씨 아이는 슬그머니 관청에 달려가서 담을 훌쩍 뛰어 넘어 소와 나귀를 가둬 둔 뜰로 갔습니다. 아전들이 잠든 틈을 타서 나귀 고삐를 풀어 놓고 훌쩍 나귀의 귀에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위위 짜! 위위 짜!”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귀를 모는 소리에 놀라서 깨어난 아전들은 허둥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귀 도둑이 들었다! 나귀 도둑이 들었다!”

夜になると、なつめ太郎は、牛やろばがつながれている役所のかいこのところまで走っていき、ぴよんとへいをとびこえて、中に入りました。下役人たちが寝てしまうと、たづなをとぎ、ぴよんととんでろばの耳にもぐりこみ、「オッホ、オッホー」と大声でかけ声をかけて、ろばを追いました。下役人たちははね起き、あわてて「ろばを引いていくやつがいるぞ」とどなりました。

闹腾了一阵，什么也没搜着。刚刚躺下，又听到“哦喝！哦喝！”又都跳了起来，还是哪里也没搜到人。才躺下，却又吆喝起来。到了过半夜，衙役们都瞌睡得了不得，有一个衙役头说：“不用管它，不知是个什么东西作怪，咱们睡咱们的觉吧。”衙役们困慌了，倒下睡得和泥块一样，什么动静也听不见了。枣核从驴耳朵里跳了下来，把门开开，赶着牲口回了庄。

그러자 창과 칼을 들은 포졸들이 달려 나와 구석구석을 살살이 뒤졌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우며 발각 뒤집었으나, 도둑은 커녕 그림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전들이 다시 잠자리에 눕자 또 “위위 짜! 위위 짜!” 하는 나귀 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전들이 또 후닥닥 뛰쳐나가 허둥지둥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탕을 친 아전들이 금방 자리에 누울까 하면 또 나귀를 모는 소리가 들려오고, 다시 자리에 누울까 하면 또 들려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정이 될 때까지 계속되니 아전들은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이젠 그만 내버려둬시다. 무





슨 도깨비 장난인지 모르겠다니까, 별일 없을 것
같으니 우린 잠이나 잡시다.” 대장이 이렇게 말
한 다음에, 아전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졸릴 대로 졸린 아전들은 자리에 눕기 바쁘게 깊
은 잠에 폴아 떨어져 밖에서 나는 소리를 전혀 듣
지 못했습니다. 이때 대추씨 아이는 나귀의 귀에
서 뛰어내려 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소와 나
귀를 몰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下役人たちは刀ややりを持ってさがしまわりましたが、
何も見つかりません。横になったとたん、また「オッホ、
オッホー」と聞こえます。またはね起きましたが、やはり
あやしいものは見つかりません。横になると、また聞こえ
てきます。真夜中をすぎたころには、下役人たちはもうね
むくてたまらなくなりました。かしらが言いました。

「ほうっておけ。なんだか知らんが、おれたちはねるぞ」

下役人たちは、ねむくてねむくて、横になったとたんね
むりこんで、なんにも耳に入りません。なつめ太郎はろば
の耳の中からとびおりて門を開け、家畜を追って村に帰り
ました。

牵走了牲口，县官是不肯罢休的，天一亮，就带着衙役下去捉拿庄户人。枣核蹦出来说：“牲口是我牵的，你要怎样！”

县官叫着说：“快绑起来！快绑起来！”

衙役拿出铁锁来，去绑枣核。“噗”的一声，枣核打铁锁链子缝里蹦了出来，站在那里哈哈地笑。

衙役们都急得直转，不知怎么拿好，还是县官主意多，说：“把他用钱褡裢装着背到大堂去吧！”

县官坐了大堂，把惊堂木一拍说：“给我打！”

打这面，枣核蹦到那面去，打那面，枣核蹦到这面来，怎么的也打不着。县官气得脸通红，嚷道：“多加几个人，多加几条棍！”





소와 나귀를 잃어버린 고을 원님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날이 밝자 원님은 아전들을 거느리고 마을에 내려와 농부들을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대추씨 아이가 나서면서 말하였습니다. “소와 나귀는 내가 끌어왔어요.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요.”

이에 화가 난 원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묶어라! 어서 묶지 못할까!” 원님의 호통소리가 떨어지기 바쁘게 아전들이 달려들어 쇠사슬로 대추씨 아이를 묶었습니다. 이윽고 “응!” 하는 소리와 함께 대추씨 아이가 쇠사슬의 고리 틈새로 빠져나오더니 툭 버티고 서서 ‘하하하!’ 너털웃음을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전들은 대추씨 아이를 어떻게 붙잡아 갈지 몰라 찢찢했지만, 원님은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전대에 넣어 메고 가져라!” 아전들이 대추씨 아이를 전대에 넣어 관청으로 메고 가자, 관청 대돌에 앉아 있던 원님이 곤봉으로 상을 ‘땅’ 치며 호령하였습니다. “여봐라, 어서 곤장을 쳐라!”

그런데 나졸들이 몽둥이를 휘둘러 힘껏 내리쳤으나 대추씨 아이는 이리저리 피하는 바람에 좀처럼 맞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원님은 고함을 쳤습니다. “포졸을 더 데려다가 되게 쳐라!”

家畜をうばい返されて、どうして知事がだまっていられましょう。夜が明けるや、下役人を引きつれて村人をつかまえにきました。なつめ太郎がびよんと進み出て言いました。

「家畜はおれがつれてきた。さあ、どうだ」

「さっさとしばりあげろ」 知事がさげびました。

下役人が鉄のくさりでなつめ太郎をしばりましたが、なつめ太郎はひょいとくさりのあなからぬけ出し、つつ立ったまま、ハハハとわらっています。下役人たちはどうしていいかわからず、あわてふためくばかりです。でもやはり知事は知恵がはたらきます。

「錢袋に入れて、法廷にしょっぴいてこい」

知事は法廷に着席するとひょうしきをバンとたたき、「さあ、こやつをなぐれ」と言いました。

ところが、こっちをたたくと、なつめ太郎はひょいとあっちに、あっちをたたくとこっちににげ、どうしてもたたけません。県知事はかっとして、顔をまっかにして、どなりました。

「人をふやせ、もっとなぐれ」